**성당과 시장**

**Eric Steven Raymond**

**저작권**: 문서의 복사, 배포, 수정에 대한 권한은 Open Publication License 2.0에 따릅니다.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대립되는 두 스타일인 “성당” 모델과 “시장” 모델을 소개한다. 리눅스의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많은 사람이 있다면, 찾을 수 없는 버그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자가수정 시스템과의 비유를 제시한 다음,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있어 이 통찰이 갖는 의미에 대해 탐구하며 마무리한다.

**목차**

* 성당과 시장
* 메일은 배달되어야만 한다.
* 사용자가 있다는 것의 중요성
* 일찍, 그리고 자주 릴리즈하라.
* 얼마나 많은 수의 눈이 복잡성을 주시하는가?
* 장미가 장미가 아닌 순간은 언제인가?
* Popclient가 Fetchmail이 되다.
* Fetchmail의 성장
* Fetchmail에서 배울 점 몇 가지 더.
* 시장 스타일의 개발에 필요한 선행조건들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회적 문맥

**성당과 시장**

리눅스의 탄생은 유닉스와 오픈 소스 도메인에서 10년간 경력을 쌓은 작성자의 관념을 완전히 깨버렸다.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면서 작성자에게 있어 큰 소프트웨어의 탄생은 마치 “성당”을 건축하듯이, 특정 몇 명의 도사들이나 작은 그룹의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만들어져야 하며, 완성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굳어있었다.

허나 리눅스의 개발자 리누스 토발즈의 스타일은 일찍, 그리고 자주 발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위임하고, 엉망인 부분까지 공개하는 스타일, 즉 말하자면 “시장”의 스타일이었다. 작성자는 이러한 너저분한 개발 스타일의 그룹이 어떻게 공중분해 되기는커녕 도리어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강해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마침내 작성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이용해 “시장” 스타일을 시도해보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메일은 배달되어야만 한다**

작성자가 Chester County Interlink(CCIL) 에 재직할 당시 locke라는 게시판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였는데, 메일을 체크하기 위해 locke에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것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작성자는 메일이 자신의 개인컴퓨터로 바로 배달되어 그것을 알 수 있고, 컴퓨터의 도구들을 이용해 메일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이와 관해서 작성자는 5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1. 모든 좋은 소프트웨어는 개발자 개인의 필요로 인해 시작된다.

* 작성자는 리눅스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이러한 이유로 크게 상향 평준화 되어있다고 믿는다.

1. 좋은 프로그래머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지 알지만, 위대한 프로그래머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할 지(그리고 재사용해야 할 지)안다.

* 실제로 리눅스 세계는 거의 기술적인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코드 재사용의 전통을 유지했다. 리누스 토발즈 또한 맨바닥이 아닌 Unix 비슷한 소형 OS인 Minix의 코드와 아이디어를 재사용 하였다.

1.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계획을 세우라. 언젠가는 버리게 될 것이다.

* 첫 번째 해결책을 구현할 때까지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올바른 방법을 찾고 싶다면 최소한 한 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1.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흥미로운 문제가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 코드 공유를 장려하는 소프트웨어 문화에서는 만약 본인이 적절한 실력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비록 자신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닐지라도 넘겨 받아 발전시켜나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 프로그램에 흥미를 잃었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당신의 마지막 의무는 능력 있는 후임자에게 프로그램을 넘겨주는 것이다.